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 22, No. 8 pp. 268-278, 2021

https://doi.org/10.5762/KAIS.2021.22.8.268
ISSN 1975-4701 / eISSN 2288-4688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

김순구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Effect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and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on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Soon-Gu Kim
Department of Nursing, Daegu Health College

요 약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및 인터넷음란물접촉이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수행하였다. D시에 소재한 대학생 165명을 대상으로 2020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자가보고식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은 평균 4.02점, 성적자율성은 평균 4.15점, 성태도는 평균 4.09점, 인터넷음란물접촉은 평균 1.68점, 성행동은 평균 1.51점으로 나타났다. 성인지감수성은 성적자율성(r=.267, p<.01)과 성태도(r=.60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고 인터넷음란물접촉(r=-.216, p<.01)과 성행동(r=-.199,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자율성은 성태도(r=.526,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행동은 인터넷음란물접촉(r=.50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음란물접촉(β=.42, p<.001) 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1 %였다. 따라서 대학생의 건전한 성행동을 유도하기 위하여 인터넷음란물접촉에 대한 자기 통제 능력을 함양하고, 책임감 있는 성행동에 대한 사회문화 조성과 지속적인 성교육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and measure how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and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ffect sexual behavior in college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165 college students in D city.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21st to the 30th of October, 2020 using a structured questionnaire.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the average scores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were 4.02, 4.15, 4.09, 1.68, and 1.51 points, respectively. Second,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gender sensitivit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in sexual autonomy (r=.267, p<.01), sexual attitude (r=.605, p<.01),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r=-.216, p<.01), and sexual behavior (r=-.199, p<.05). Sexual autonomy was considerably different in sexual attitude (r=.526, p<.01), and sexual behavior was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r=.509, p<.01). Third, sexual behavior was found to influence th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β=.42, p<.001). These results highlight not only the need to develop a sex education program for college students and that this program should be run constantly, but also the need to cultivate a social culture for college students to develop control over their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to engage in responsible sexual behavior.

Keywords : College Student,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Gender Sensitivity, Sexual Attitude, Sexual Autonomy, Sexual Behavior

*Corresponding Author : Soon-Gu Kim(Daegu Health College)
email: sgkim@dhc.ac.kr
Received April 21, 2021 Revised May 17, 2021
Accepted August 5, 2021 Published August 31, 2021

1. 서론

1.1 연구의 필요성

최근 n번방 사건이나 사회지도층의 성추행 사건, 미투 운동 등은 우리사회의 성숙하지 못하고 왜곡된 성문화의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이 얼마나 부족한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하며 성인지감수성을 높이고 건강한 성문화를 형성해야 함을 시사한다. 성인지감수성은 성차별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성 평등한 정책을 실천할 수 있는 실행능력이다[1]. 궁극적으로는 성차별적인 고정관념을 경계하면서 다른 성의 상태에 대하여 인식하고 통찰할 뿐만 아니라 개방적인 자세로 타인의 감정을 잘 인지할 필요가 있다[2]. 성인지감수성의 저하는 창의성을 낮게 하고[3], 성적 자기주장을 어렵게 만들뿐만 아니라[4], 자기효능감과 데이트 폭력에 대한 위험을 감지할 수 있는 능력을 저하시켜[5], 성 관련 문제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될 대학생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해 성인지감수성을 높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성개방의 시대적 변화에 따라 대학생의 41.6 %가 성관계 경험이 있었으며[6], 성관계 유경험자의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7]. 성적자율성은 성적 관계와 관련된 상황에서 외부의 압력에 대해 통제할 수 있고 부담을 가지지 않는 것으로[7], 성폭력 피해를 경험한 대학생은 자신의 역량과 자율성을 발휘할 능력이 저하되고 후속 성폭력의 피해자가 될 위험이 더욱 더 증가하였으며, 재피해자가 되었다는 사실에 대하여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매우 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 그러므로 성관계를 제한하는 것보다 자신의 성적인 욕구를 스스로 조절하여 원하지 않는 성 관련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성적 자율성은 성태도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성태도는 성행위와 성 심리에 대한 개인의 견해를 나타내는 것으로[9], 성태도가 긍정적인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9-11]. 허용적인 성태도를 가진 대학생이 SNS 성희롱 피해경험과 가해경험을 모두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12],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관계 경험이 많고[13,14], 성행동도 개방적이며[15], 성폭력 경향의 성행동을 많이 하였다[16]. 한편 보수적인 성태도를 가진 대학생이 이성 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17], 실제적인 성교육을 통해 대학생들이 올바른 성태도를 갖고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터넷 발달은 온라인에서 성과 관련된 경험을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데, 온라인을 통해 여러 나라의 대학생 2,690명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연구[18]에 의하면 89.8 %의 학생이 온라인으로 성에 대한 정보를 얻고, 76.5 %의 학생이 성적인 오락을 즐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이버섹스를 하는 경우가 30.8 %에 이르렀는데, 1.1 %의 학생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지불하였고 0.5 %의 학생은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인터넷음란물접촉은 아동에 대한 성범죄를 증가시키고, 이러한 범죄자들 중 절반 이상이 이전에 다른 범죄경력이 없고, 자녀와 가족이 있으면서 직장에 다니고, 학식까지 갖춘 남성인 것으로 나타나[19], 누구나 성범죄에 연루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국내의 연구에서는 인터넷음란물접촉 빈도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태도를 갖고 성폭력 허용도를 증가시킨 것으로 나타났고[20], 음란물접촉 후 성매매나 성폭력을 시행하는 경우도 발생하여[21], 왜곡된 성문화의 확산과 이차적인 중대한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인터넷을 이용한 음란성 정보를 원할 때 언제든지 다운로드할 수 있다는 인식이 강할수록 인터넷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는 의도가 강해지며[22], 감각 추구 성향과 다른 미디어를 통한 성 표현물의 노출이 증가할수록 인터넷음란물노출이 증가하는 경향이므로[23], 원하지 않는 인터넷음란물 노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사회적 장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성행동은 음란물접촉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음란물에 접촉한 경험이 있을수록 성행동이 더 개방적이었다[24-26]. 외국의 경우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성경험을 한 친구가 있는 경우와 대부분의 남성이 결혼 전에 성경험을 한다는 인식으로 나타났으며[27], 국내의 경우 이성교제 경험, 남학생, 또래허용도가 높은 경우, 고학년, 부모허용도가 높은 경우, 주관적인 성지식이 높은 경우에 성행동이 높게 나타났고[28], 가족으로부터의 성관련 정보획득, 성지식, 이성 친구 경험, 부모와의 성 의사소통 정도 등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쳤다[29]. 성에 대한 인식과 태도가 개방적인 경우 성행동도 개방적이었고, 남학생의 경우는 물리적, 언어적, 정신적 성폭력 행동이 더 지배적이고 수용적인 태도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30], 다양한 요인들이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연구를 통하여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해 건전한 성행동의 중요성을 실감 하였다. 현재까지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내연구는 성태도와 성행동[12,13,15,17,24], 성지식, 성태도 및 성행동[16,28,30], 성지식, 성적자율성 및 성태도[6,9,11], 성의식과 성태도

[14]에 대한 연구와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에 대한 연구[29]가 이루어졌으므로 성행동과 연관이 있는 성태도, 성적자율성 변수를 확인하고, 최근에 대두되고 있는 성인지감수성과 인터넷음란물접촉에 대한 관련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을 파악하고, 그들의 건강한 성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올바른 성문화 조성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시도되었다.

1.2 연구문제

본 연구는 성행동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함이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둘째,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의 정도를 파악한다.

셋째,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넷째,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한다.

2. 연구방법

2.1 연구설계

본 연구는 대학생이 지각한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을 파악하고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2 연구 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의 대상자는 D시에 소재하는 일 대학의 보건계열 3개 학과와 비보건계열 3개 학과로 총 6개 학과 학생들을 편의표집 하였다. 해당 학과 지도교수를 통하여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설명하고 연구에 참여하기를 서면 동의한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윤리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설문자료에 대한 비밀과 익명 보장, 응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철회 가능함을 설명하였고, 소정의 답례품을 전달하였다.

자료 수집은 2020년 10월 21일부터 30일까지 이루어졌으며, 본 연구의 표본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유의수준 .05, 효과크기 .15, 검증력 95 %로 산출한 결과 적정 표본 크기는 138명이었다. 편의표집 대상자에 대한 탈락률을 고려하여 170부를 배부하여 169부(99.4 %)가 회수되었으며, 불성실한 자료 4부를 제외하고 165부를 최종 분석하였다.

2.3 연구도구

2.3.1 성인지감수성

성인지감수성은 성정체성에 대한 개방성과 자기성찰로[1], 본 연구에서는 Ha[31]의 성인지감수성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하위요인인 젠더의식 10문항과 양성평등의식 12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고, 최저 22점에서 최고 11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인지감수성이 높음을 의미하고, 부정 문항은 역산하였다. Ha[31]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8이었다.

2.3.2 성적자율성

성적자율성은 개인이 성에 대하여 자기주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데[32], 본 연구에서는 Chang[32]의 성적 자율성 평가도구를 Whang[9]이 수정 보완한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한 점수를 말한다. 총 13문항이며, 5점 Likert척도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으로, 최저 13점에서 최고 65점이고, 점수가 높을수록 성적 자율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Chang[32]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6이었고, Whang[9]의 연구에서는 .84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91이었다.

2.3.3 성태도

성태도는 개인의 성에 대한 사고, 감정 및 행동 양식으로[33], 본 연구에서는 Whang[9]이 개발한 성태도 인식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신체변화, 성적 호기심, 이성교제, 임신, 출산, 결혼, 남녀평등, 성적 자기주장 등에 대한 태도 내용으로 총 27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척도로, 최저 27점에서 최고 13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하고, 부정문항은 역산하였

다. Whang[9]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6이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84였다.

2.3.4 인터넷음란물접촉

인터넷음란물접촉은 인터넷을 통해 유통, 소비되는 음란한 성관련 정보와 표현물[31]에 접촉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Peter와 Valkenberg[34]의 연구에서 사용된 도구를 Yang[35]이 번안, 수정한 인터넷음란물 노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총 8문항으로,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최저 5점에서 최고 4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음란물접촉 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 Peter와 Valkenberg[34]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92였으며, Yang[35]의 연구에서는 .91이었고, 본 연구에서는 .96이었다.

2.3.5 성행동

성행동은 개인의 성과 관련된 경험을 말하는데[15], 본 연구에서는 Yoon[26]의 성폭력을 포함한 성적 허용과 성 경험에 대한 성행동 정도를 나타내는 도구를 수정, 보완하여 측정한 점수이다. 총 10문항이며, 각 문항은 '전혀 아니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 Likert척도로 측정되며, 최저 5점에서 최고 50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성행동이 개방적임을 의미한다. Yoon[26]의 연구에서 도구의 신뢰도 Cronbach' α는 .82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80이었다.

2.4 자료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WIN 18.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하였다.

첫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은 빈도, 백분율, 평균평점 및 표준편차로 분석하였다.

둘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Duncan's test를 시행하였다.

셋째, 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는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로 분석하였다.

넷째, 대상자의 성행동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은 Multiple regress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3. 연구결과

3.1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별은 여학생 133명(80.6 %), 남학생 32명(19.4 %)이었다. 연령은 평균 21.9세로 20~24세 152명(92.1 %), 25~29세 11명(6.7 %), 30세 이상 2명(1.2 %)이었다. 종교는 없는 경우가 121명(73.3 %)으로 가장 많았고 불교 23명(13.9 %), 기독교 19명(11.5 %), 천주교 2명(1.2 %) 순이었다. 보건계열 학생은 89명(53.9 %), 비보건계열 학생이 76명(46.1 %)이었으며, 대학교 1학년 52명(31.5 %), 2학년 54명(32.7 %), 3학년 59명(35.8 %)이 참가하였다.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가 161명(97.6 %)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116명(70.3 %)이 이성교제 경험이 있었으며, 이성교제 횟수는 평균 2.5회로 이성교제를 하지 않은 경우가 49명(29.7 %)으로 가장 많았고, 4회 이상 35명(21.2 %), 2회 34명(20.6 %), 3회 28명(17.0 %), 1회 19명(11.5 %) 순으로 나타났다〈Table 1〉.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the subjects
(N=165)

Characteristics		Respondents	Percentage
Gender	Male	32	19.4
	Female	133	80.6
Age	20~24	152	92.1
	25~29	11	6.7
	30≤	2	1.2
	Mean	21.9	-
Religion	No	121	73.3
	Buddhist	23	13.9
	Christian	19	11.5
	Catholic	2	1.2
Department	Health	89	53.9
	non-Health	76	46.1
Grade	freshman	52	31.5
	sophomore	54	32.7
	junior	59	35.8
Experience of Sex Education	Yes	161	97.6
	No	4	2.4
Experience of Relationship	Yes	116	70.3
	No	49	29.7
Number of Relationship	No	49	29.7
	1	19	11.5
	2	34	20.6
	3	28	17.0
	4≤	35	21.2
	Mean	2.5	-

3.2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및 성행동

연구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에 대하여 측정한 결과 5점 만점 중 성인지감수성은 4.02점으로 보통 이상의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성적자율성은 4.1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성태도는 4.09점으로 보통 수준 이상으로 성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터넷음란물접촉은 1.6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고, 성행동은 1.51점으로 덜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Table 2.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N=165)

Variables	M±SD
Gender Sensitivity	4.02±.56
Sexual Autonomy	4.15±.62
Sexual Attitude	4.09±.41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1.68±.73
Sexual Behavior	1.51±.54

3.3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및 성행동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5.80, p=.000), 연령(F=7.19, p=.001), 학과(t=2.58, p=.011), 학년(F=10.99, p=.000)으로 나타났다. 남학생보다 여학생이, 보건계열 학생이 더 점수가 높으므로 성인지감수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사후검정

Table 3.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according to General Characteristics (N=165)

Characteristics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Sexual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Sexual Behavior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M±SD	t or F(p) Duncan
Gender	Male	3.55±.69	-5.80 (<.001)**	4.04±.81	-1.11 (.267)	3.93±.43	-2.54 (.012)*	2.15±1.04	4.18 (<.001)**	1.78±.69	3.15 (.002)*
	Female	4.13±.46		4.17±.57		4.13±.40		1.57±.59		1.45±.48	
Age	20~24[a]	4.07±.55	7.19 (.001)* a>b	4.14±.63	.12 (.886)	4.10±.41	.81 (.448)	1.65±.68	1.95 (.145)	1.47±.50	6.56 (.002)*
	25~29[b]	3.49±.55		4.18±.53		4.04±.37		2.08±1.18		2.06±.84	
	30≤[c]	3.39±.16		4.35±.49		3.76±.34		2.00±1.41		1.55±.21	
Religion	No	4.04±.58	.31 (.815)	4.12±.59	8.18 (<.001)**	4.09±.40	.74 (.529)	1.69±.71	.45 (.720)	1.49±.51	.98 (.404)
	Buddhist	3.93±.48		4.29±.46		4.13±.48		1.65±.89		1.64±.73	
	Christian	3.98±.58		4.35±.54		4.14±.43		1.74±.74		1.51±.52	
	Catholic	4.16±.55		2.27±1.79		3.70±.31		1.13±.18		1.05±.07	
Department	Health	4.12±.52	2.58 (.011)*	4.17±.66	.59 (.558)	4.14±.38	1.51 (.134)	1.66±.63	-.53 (.595)	1.54±.50	.83 (.409)
	non-Health	3.90±.59		4.12±.58		4.04±.44		1.72±.84		1.47±.59	
Grade	freshman[a]	4.14±.51	10.99 (<.001)** a,c>b	4.13±.75	.65 (.522)	4.16±.34	4.24 (.016)* a,c>b	1.69±.66	.51 (.600)	1.51±.50	.37 (.692)
	sophomore[b]	3.74±.62		4.09±.57		3.96±.47		1.75±.94		1.56±.62	
	junior[c]	4.17±.56		4.22±.54		4.16±.39		1.61±.57		1.47±.50	
Experience of Sex Education	Yes	4.03±.56	1.01 (.314)	4.17±.61	2.40 (.018)*	4.10±.41	.79 (.433)	1.66±.72	-2.19 (.030)*	1.51±.54	-.61 (.543)
	No	3.74±.60		3.42±.62		3.94±.22		2.47±1.03		1.68±.56	
Experience of Relationship	Yes	3.98±.56	-1.25 (.214)	4.19±.60	1.34 (.182)	4.10±.42	.13 (.897)	1.74±.74	1.55 (.124)	1.68±.55	6.95 (<.001)**
	No	4.10±.57		4.05±.67		4.09±.39		1.55±.70		1.11±.21	
Number of Relationship	No[a]	4.10±.57	1.44 (.224)	4.05±.67	.56 (.689)	4.09±.39	1.38 (.242)	1.55±.70	1.56 (.187)	1.11±.21	13.36 (<.001)** a<c,d,e
	1[b]	4.09±.61		4.17±.45		4.19±.39		1.78±.67		1.50±.56	
	2[c]	4.11±.55		4.24±.59		4.18±.39		1.55±.54		1.64±.48	
	3[d]	3.89±.58		4.13±.77		4.08±.50		1.90±.64		1.73±.52	
	4≤[e]	3.88±.52		4.20±.54		3.98±.38		1.78±.99		1.78±.64	

*p< .05, **p< .01

Table 4. Relationship of Gender Sensitivity, Sexual Autonomy, Attitude,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N=165)

	Gender Sensitivity r(*p*)	Sexual Autonomy r(*p*)	Sexual Attitude r(*p*)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r(*p*)
Sexual Autonomy	.267(.001)**			
Sexual Attitude	.605(.000)**	.526(.000)**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216(.005)**	.111(.157)	-.056(.473)	
Sexual Behavior	-.199(.010)*	.100(.201)	-.059(.451)	.509(.000)**

*p< .05, **p< .01

결과 25~29세 학생보다 20~24세 학생이, 2학년보다 1학년과 3학년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자율성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종교(F=8.18, *p*=.000)와 성교육 경험(t=2.40, *p*=.018)으로 나타났는데, 기독교인과 성교육 경험이 있는 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성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2.54, *p*=.012)과 학년(F=4.24, *p*=.016)으로, 여학생의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사후검증결과 1학년과 3학년이 2학년보다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인터넷음란물접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4.18, *p*=.000)과 성교육 경험(t=-2.19, *p*=.030)으로, 남학생과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인터넷음란물에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변수는 성별(t=3.15, *p*=.002), 연령(F=6.56, *p*=.002), 이성교제 경험(t=6.95, *p*=.000), 이성교제 횟수(F=13.36, *p*=.000)로, 남학생, 25~29세,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행동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후검정결과 이성교제 횟수가 2회, 3회, 4회 이상인 대학생이 이성교제를 하지 않은 대학생보다 성행동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3.4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및 성행동 간의 관계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연구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은 성적자율성(r=.267, *p*<.01)과 성태도(r=.605,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며, 인터넷음란물접촉(r=-.216, *p*<.01)과 성행동(r=-.199, *p*<.05)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적자율성은 성태도(r=.526, *p*<.01)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행동은 인터넷음란물접촉(r=.509, *p*<.01)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3.5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성별, 연령,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횟수, 성인지감수성, 인터넷음란물접촉 등을 가변수로 투입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인터넷음란물접촉(*β*=.42, *p*<.001)이 대학생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인터넷음란물접촉이 많을수록 성행동이 개방적이었으며, 성행동에 대한 총 설명력은 44.1 %로 나타났다(F=22.56, *p*<.001)〈Table 5〉.

Table 5. Factors Affecting Sexual Behavior of the subjects (N=165)

Variables	*β*	t	*p*	VIF	tolerance
(Constant)		2.80	.006		
Gender	-.07	-1.07	.288	1.307	.765
Age	.09	1.45	.148	1.108	.902
Experience of Relationship	-.24	-2.44	.016	2.931	.341
Number of Relationship	.21	2.04	.043	2.961	.338
Gender Sensitivity	.00	.03	.978	1.340	.746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42	6.70	<.001	1.141	.876
F-value: 22.56 p-value: <.001 R^2: .461 *adj* R^2 : .441					

Reference group: Gender-male, Experience of Relationship-Yes, Number of Relationship-2, 3, 4≤

4. 논의 및 고찰

본 연구는 대학생들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에 대하여 파악하고, 이 변수들의 관계와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하였다. 이에 본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은 5점 만점에 4.02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이 수준은 부산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5]의 2.42점(4점 만점)과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31]의 3.89점(5점 만점) 보다 약간 높았으며, 경기도의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4]의 4.13점(5점 만점)보다 약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지역적인 부분과 편의표집에 의한 차이라고 생각한다. 성인지감수성을 통해 우리사회의 모든 구조와 현상에서 성차별과 젠더 이데올로기를 발견하고, 그것이 정의롭지 않을 때는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느껴야 하므로[1], 이 사회를 이끌어갈 주역인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이는 전략이 필요하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인지감수성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보건계열 학생이 비보건계열 학생보다, 사후분석 결과 20~24세 대상자, 2학년보다 1학년과 3학년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자 중·고등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연구[31]와 여고생에서 높게 나타났다고 보고한 연구[4]결과와 일치하는 결과였고, 남자 대학생과 이성교제횟수가 많을수록 성인지감수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5] 결과와는 상반되는 결과였다. 이러한 결과는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학교강사의 성교육을 받은 후 성교육에 대한 만족도가 높은 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으므로[31]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을 높일 수 있는 실제적인 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구대상자의 성적자율성은 5점 만점에 4.15점으로 높은 수준이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다른 연구[6,7,10,11]의 결과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최근 몇 년 동안 대상자들이 연구대학에서 진행하는 온라인 성폭력 예방교육에 참여하고, 성에 대한 의식이 높아져 성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발휘하는 성향이 높아졌을 것으로 짐작한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적자율성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종교와 성교육 경험이 있는 경우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성별, 연령, 학과, 이성교재 등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여대생과 보건계열 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9-11] 결과, 성관계 경험 또는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높게 나타난 연구[6,7] 결과와 차이가 있었고, 성교육 경험이 있는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이 높다고 보고한 연구[10] 결과와 일부 일치함을 확인하여 추후 반복연구를 수행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

대상자의 성태도는 5점 만점에 4.09점으로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6,24]에서의 성태도 3.09점과 2.56점(각 5점 만점), B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의 126.6점(만점 210점)보다 높은 수준이었고, D와 P시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10]의 88.39점(100점 만점)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었다. D시의 대학생의 성태도 점수 4.01점으로 보고한 연구[11] 결과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도시에 거주하는 대학생의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추후 반복연구를 통해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 전국적인 현황을 비교해볼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성태도의 차이를 검정한 결과 성별과 학년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는데, 여대생, 1학년과 3학년의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여대생과 보건계열 학생의 성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난 Kim[11]과 Whang[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성태도의 개방성과 보수성의 정도를 분석한 연구[14-16]에서는 남자 대학생이 여대생보다 성태도가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에 대한 우리사회의 가부장적이고 보수적인 일면이 엿보이는 것이라 사료된다. 성지식이 높은 대학생의 성태도가 더 개방적이고[6], 개방적인 성태도를 가진 대학생의 성관계 경험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13,14,24]. 성태도가 개방적인 남자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은 낮은 반면, 성태도가 개방적인 여자 대학생의 성희롱 인식 수준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36], 성별에 따른 맞춤형 성교육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대상자의 인터넷음란물접촉은 5점 만점에 1.68점으로 낮은 수준이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기도 고등학생의 1.93점(5점 만점)[4], 부산지역 청소년의 1.70점(5점 만점)[31]보다 약간 낮은 수준으로, 이는 연구대상자의 거주지역이 다소 보수적인 성향인 지역적인 차이로 인한

결과라 사료된다. 초등학생 때 처음 음란물에 노출된 경우는 중·고등학생 때 노출되었을 때보다 더 성태도가 개방적이었으며[37], 어릴 때 음란물에 처음 접촉하거나, 거의 매일 음란물에 접촉하거나, 많은 시간 동안 음란물에 접촉할수록 음란물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아 이성과의 성관계 장면을 모방하거나 사이버섹스를 하는 경향이 나타난다[22]. 또한 인터넷음란물에 많이 노출되면 반사회적 성의식을 형성하게 되고[35], 성에 대한 허용성 인식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23].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왜곡된 성문화가 은밀하게 확산되고 n번방 텔레그램 사건과 같은 온라인 성범죄가 나타나므로 인터넷음란물접촉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인터넷음란물 폐해 예방내용을 포함한 성교육을 강화하고, 대학생 자신의 통제력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수적이다.

연구 대학생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인터넷음란물접촉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남학생과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없는 학생이 인터넷음란물에 더 많이 접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학생과 성교육의 만족도가 낮은 학생의 음란물접촉 빈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한 Ha[31]의 연구결과와 비슷하였다. 남학생과 위기 청소년의 인터넷음란물접촉 빈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 연구결과[21]와 일부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대학생이 인터넷음란물에 처음 노출된 시기는 중학생 45.7 %, 초등학생 36.6 %, 고등학생 14.3 %, 대학생 3.4 %의 순으로 나타나[37], 컴퓨터와 인터넷에 익숙하고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어린 연령부터 무방비로 음란물에 노출될 위험이 큰 현실을 짐작할 수 있었다. 인터넷음란물접촉은 부모의 자녀 인터넷 사용 감시나 친구지향성 성격의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23], 대학생 스스로 인터넷 사용을 조절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도록 하고, 인터넷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

연구대상자의 성행동은 5점 만점에 1.51점으로 성행동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서울 및 수도권 거주 대학생의 성행동을 4.39점(8점 만점)으로 보고한 Kim[24]의 연구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Kim 등[16]은 B시 거주 대학생의 성행동이 평균 57.2점(60점 만점)으로 성폭력행동 경향이 낮은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Kim[29]은 서울 및 충남 소재 간호대학생의 성행동을 1.53점(3점 만점)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보다 높은 수준이었다. 성행동에 대한 4편의 연구에 참여한 대부분의 대학생이 중간 수준부터 보수적인 수준에 이르는 성행동 성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성행동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이성교제 경험, 이성교제 횟수 등으로 나타났다. 즉, 남학생, 25~29세,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경우, 이성교제 횟수가 2회 이상일 때 대학생의 성행동이 더 개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15,16,24,28,30,38]에서도 남학생의 성행동이 여학생보다 더 개방적이거나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성의 성에 대하여 터부시하고 남성의 지배적인 권한을 성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는 가부장적인 문화가 영향을 준 것으로 짐작한다. Ho[30]의 연구에서 남학생의 성 허용도와 성매매 허용도가 여학생보다 더 높게 나타난 결과도 이러한 맥락과 관련된다고 생각한다. Kim[24]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은 연령과 학년이 높을수록 성행동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im과 Kim[28]의 연구에 참여한 대학생들도 이성교제 경험, 고학년, 또래허용도가 높은 경우, 부모 허용도와 주관적 성지식이 높은 경우 성행동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대학생들의 경우 대부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성교육을 받았었고, 그 후 성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가 10.5 %로 극소수에 불과하고[29], 54.7 %가 성경험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므로[16], 대학생들이 성에 대한 인식을 올바르게 갖고, 건전하고 안전하며 책임 있는 성행동을 하도록 지속적인 성교육을 받을 필요가 있다.

연구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이 높을 경우 성적자율성이 높고, 성태도가 긍정적이며, 인터넷음란물을 적게 접촉하고, 성행동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상자의 성적자율성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인터넷음란물접촉 정도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확인한 결과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인터넷음란물접촉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1 %였다. 청소년 및 대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대상자들이 인터넷음란물에 많이 접촉할수록 성인지감수성이 낮아지고[4,31], 성행동이 더 개방적이거나 허용적인 것으로 나타나[20,23,25,26,37],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또한 대학생의 성태도가 긍정적일수록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한 연구[9,11]결과도 본 연구와 일치하였다. 한편 Kim[24]은 대학생의 음란물접촉빈도가 높을수록 성태도와 성행동이 개방적인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Do와 Seo[10]는 대학생의 성적자율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자기효능감, 성교육, 성지식, 성태도 등인 것으로 보고하여 본 연구와

부분적으로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친 요인이 인터넷음란물접촉뿐인 것으로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다른 연구에서는 대학생의 성태도가 개방적일수록 성폭력적 성행동을 많이 하고[16], 개방적인 성행동 경향이 높고[15], 성허용도가 높았으며[30], 성태도와 성적자율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6]. 이러한 연구결과는 연구대상자의 주거지가 상이하고[6,16,24,38], 연구 시행시기가 5~16년 정도 차이가 있으며[6,9,16,24], 우리나라의 눈부신 인터넷발달과 더불어 제한 없이 쉽게 접근 가능한 성 관련 정보획득이 가능한 현실이 반영되어 나타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성인지감수성은 최근에 부각된 성 관련 개념으로 성인지감수성과 성행동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상황이므로 비교하기가 어려웠다. 그러므로 반복연구를 통해 관련 요인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다. 대학생이 인터넷음란물에 많이 접촉할수록 성폭력과 성매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21], 성태도와 성행동은 더 개방적이고, 부모의 의사소통이 개방적일수록 성행동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24].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에서 시행하는 성교육이 성 매개 감염예방과 건강한 성행위를 위해 효과적이고 필요한 교육이라 인식하고 있어[27], 대학생의 건강한 성행동을 유도하기 위해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대학생들이 높은 수준의 성인지감수성과 성적자율성을 갖고 긍정적인 성태도로 건강한 성행동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가 성에 대한 개방적인 의사소통을 하고, 대학에서는 인터넷음란물의 유해성과 폐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건강한 성행위와 인터넷음란물 접촉을 통제하기 위한 능력향상 등에 대한 성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정부에서는 인터넷음란물 접촉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병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한 이러한 연구결과는 우리사회의 건강한 성문화 정착을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과 성교육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일 대학의 학생을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므로 일반화하는데 신중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등을 파악하여 관계를 규명하고, 그들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여 건강한 성문화 조성을 위한 중재 프로그램 개발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결과 대학생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는 평균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인터넷음란물 접촉은 적게 하고, 성행동은 보수적인 수준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인지감수성, 성적자율성, 성태도, 인터넷음란물접촉, 성행동 간의 관계를 검정한 결과 성인지감수성이 높을 경우 성적자율성이 높고, 성태도가 긍정적이며, 인터넷음란물을 적게 접촉하고, 성행동이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성적자율성이 높을수록 성태도가 긍정적이었으며, 인터넷음란물접촉 정도가 높을수록 개방적인 성행동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대상자의 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인터넷음란물접촉으로 나타났으며, 설명력은 44.1 %였다.

본 연구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한다. 첫째, 다양한 대학생 집단을 대상자로 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된 성인지감수성, 성태도, 성적자율성을 향상시키고 인터넷음란물접촉을 통제하는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 및 그 효과를 검정하는 연구를 제언한다. 둘째, 인터넷음란물을 빈번하게 접촉하는 대상자를 중심으로 그들의 경험과 맥락을 이해하기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다.

References

[1] J. Y. Lee, *A Study on Developing Gender Sensitivity Measuremen,* Master's thesis,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21-22, 2011.

[2] S. Y. Lee, S. E. Yang, "A Study on Gender Sensitivity of Childcare Staff", *Fall Conference on the Korean Home Management Association, Seoul, Korea,* pp.204, November, 2018.

[3] E. J. Seo, S. J. Jeong, J. J. Youn, R. Y. Jeon, "The Influence of Personality and Gender Sensitivity in University Students upon Creativity", *Journal of Learner-Centered Curriculum and Instruction,* Vol.20, No.12, pp.71-87, June, 2020.
DOI: http://dx.doi.org/10.22251/jlcci.2020.20.12.71

[4] S. L. Park, *The Mediating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in the Relationship between Internet Pornography Contact and Sexual Self-assertion of High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Ajou University, Suwon, Korea, pp.29,34-45, 2020.

[5] J. Y. Mun, *The Effect of Gender Sensitivity on Dating Violence Risk Perception in University Students: Focusing on the Mediation Effec of Self-Efficiency,* Master's thesis,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pp.41-47, 2020.

[6] M. S. Choi, N. S. Ha, "A Study on Knowledge, Attitude, and Experience in Sex and Sexual Autonomy of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10, No.4, pp.318-330, December, 2004.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04.10.4.318

[7] G. Y. Cho, Y. H. Kim, "Factors Affecting Sexual Autonomy among Fe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5, No.11, pp.6710-6718, November, 2014.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4.15.11.6710

[8] E. C. Chang, J. Lin, E. E. Fowler, E. A. Yu, T. Yu, Z. Jilani, E. R. Kable, J. K. Hirsch, "Sexual Assault and Depressive Symptoms in College Students: Do Psychological Needs Account for the Relationship?", *National Association of Social Workers,* Vol.60, No.3, pp.211-218, July, 2015.
DOI: http://dx.doi.org/10.1093/sw/swv017

[9] I. M. Whang, *A Study of Korean Students' Sexual Knowledge, Self-regulation, Attitude and Their Perception of Unwed Pregnancy,* Master's thesis, Eulji University, Daejeon, Korea, pp.30-37,56, 2009.

[10] E. S. Do, Y. S. Seo, "Factors Influencing Sexual Autonomy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2, pp.129-136, May, 2013.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2.129

[11] S. G. Kim, "A Study on Sexual Attitude, Autonomy and Harassment Experience of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8, No.3, pp.223-231, March, 2017.
DOI: https://doi.org/10.5762/KAIS.2017.18.3.223

[12] C. H. An, *The Effect of Sexual Communication and Sexual Attitude of College Students on SNS Sexual Harassment,* Master's thesis, Sunmoon University, Asan, Korea, pp.32-66, 2017.

[13] E. M. Lee, K. Y. Kim, "The Effect of Sexual Attitude, Sexual Attitude of Parents, and Depression on Sexual Intercourse Experience of University Students",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Vol.25, No.3, pp.155-161, September, 2017.
DOI: https://doi.org/10.17547/kjsr.2017.25.3.155

[14] S. H. Kim, W. C. Yoon, "Sexual Consciousness and Attitude of Male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Korean Public Health Nursing,* Vol.26, No.2, pp.248-257, August, 2012.
DOI: http://dx.doi.org/10.5932/JKPHN.2012.26.2.248

[15] H. Y. Jo, *Research on Sexual Attitude and Behaviors depending on Adult Attachment,* Master's thesis, Yeungnam University, Gyeongsan, Korea, pp.6,21-26, 2012.

[16] N. H. Kim, Y. J. Park, H. S. Jung, "Relationships among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that University Students Perceived", *Journal of Psychology and Behavior,* Vol.7, No.2, pp.17-42, December, 2015.

[17] K. E. Lee, *A Study on HeteroSexual Relationship Satisfaction, the Sexual Behavior-Attitude Concordance and Conflict Management Strategy in College Student,* Master's thesis, Seoul Woman's University, Seoul, Korea, pp.31-36, 2007.

[18] N. Döring, K. Daneback, K. Shaughnessy, C. Grov, E. S. Byers, "Online Sexual Activity Experiences among College Students: A Four-Country Comparison", *Arch Sex Behav*, Vol.46, No.6, pp.1641-1652, August, 2017.
DOI: https://doi.org/10.1007/s10508-015-0656-4

[19] A. W. Burgess, C. M. Carretta, A. Burgess, "Patterns of Federal Internet Offenders: A Pilot Study", *Journal Forensic Nurs,* Vol.8, No.3, pp.112-121, September, 2012.
DOI: https://doi.org/10.1111/j.1939-3938.2011.01132.x

[20] H. G. Choi, *The Effect of Teenagers' Contact with Internet Obscene Materials on Their Sexual Consciousness, Sexual Behavior and Perception of Sexual Violence,* Master's thesis, Dongguk University, Gyeongju, Korea, pp.68-91, 2012.

[21] B. S. Hong, M. A. Nam, "Effects of Exposure to Internet Phonography on Sexual Assault and Prostitution of Adolescents", *Korean Child Welfare Studies*, Vol.40, pp.9-39, December, 2012.

[22] G. Y. No, D. J. Park, M. S. Kwon, "Internet Pornography Addiction Tendency and Intention to Use: Application of the Planned Behavior Model",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7, No.4, pp.168-191, August, 2013.

[23] M. I. Choi, "Determinants on the Exposure to Internet Sexually Explicit Materials and Adolescents Sexual Attitudes", *Korean Journal of Journalism & Communication Studies*, Vol.53, No.2, pp.49-69, April, 2009.

[24] J. Y. Kim, *The Analysis of Sexual Attitude and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by Communication Style,* Master's thesis, Sookmyung Women's University, Seoul, Korea, pp.31-53, 2005.

[25] M. J. Sung, *The Impact of Internet Pornography on Adolescents' Sexual Beliefs, Attitudes, and Behaviors,* Master's thesis, Kangnam University, Yongin, Korea, pp.19-43, 2013.

[26] J. Y. Yoon, *Survey on Status of Obscene Media Contact and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Behavior of Ulsan Middle School Students,* Master's thesis, Ulsan University, Ulsan, Korea, pp.51, 2010.

[27] A. S. R. Alsubaie, "Exploring Sexual Behaviour and Associated Factors among Adolescents in Saudi Arabia: A Call to End Ignorance", *Journal of Epidemiology and Global Health,* Vol.9, No.1, pp.76-80, March, 2019.
DOI: https://doi.org/10.2991/jegh.k.181210.001

[28] J. H. Kim, K. S. Kim, "The Effects of College Students'

Sexual Knowledge and Sexual Attitudes on their Sexual Behavior", *Korean Journal of Family Welfare,* Vol.13, No.1, pp.123-138, March, 2008.

[29] M. O. Kim, "Factors that Influencing Sexual Behavior in Nursing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Academia-Industrial cooperation Society,* Vol.14, No.8, pp.3876-3886, August, 2013.
DOI: http://dx.doi.org/10.5762/KAIS.2013.14.8.3876

[30] S. M. Ho, *Sexual Knowledge, Attitude and Sexual Behavior of the University Students,*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pp.23-39, 2009.

[31] K. H. Ha,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Parent and Peer Factors, Contact with Internet Pornography, and Gender Sensitivity: Focusing on the Moderating Effect of Sexuality Education,* Ph.D dissertation, Silla University, Busan, Korea, pp.10,71-72,80-88,154-155, 2018.

[32] S. B. Chang, "Development of Sexual Autonomy Measurement for College Students", *Korean Journal Women Health Nursing*, Vol.8, No.1, pp.106-115, March, 2002.
DOI: http://dx.doi.org/10.4069/kjwhn.2002.8.1.106

[33] S. H. Kang, *A Study on Variables Affecting Sexual Behavior of Adolescents with Disabilities*, Master's thesis, Gachon University, Seongnam, Korea, pp.13, 2016.

[34] J. Peter, P. M. Valkenburg, "Adolescents'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Online Material and Recreational Attitudes toward Sex", *Journal of Communication,* Vol.56, pp.639-660, December, 2006.
DOI: https://doi.org/10.1111/j.1460-2466.2006.00313.x

[35] S. J. Yang, "A Study on the Influence of Exposure to Sexually Explicit Materials on the Internet upon the Shaping of Adolescents' Antisocial Sexual Consciousness", *Studies on Korean Youth,* Vol.21, No.4, pp.247-284, November, 2010.

[36] S. H. Cho, E. J. Han, "Gender Difference between Sexual Harassment Awareness and Sexual Attitude in College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11, No.11, pp.385-391, November, 2020.
DOI: https://doi.org/10.15207/JKCS.2020.11.11.385

[37] E. M. Kim, S. J. Yu, M. R. Song, "Correlation between History of Exposure to Obscene Material, Sexual Attitudes and Intercourse Experience among University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of Nursing,* Vol.20, No.1, pp.18-26, February, 2013.
DOI: http://dx.doi.org/10.7739/jkafn.2013.20.1.18

[38] J. J. Kwak, *The Relationships among Executive Functions, Personality Factors and College Student's Sexual Behaviors,* Master's thesi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Korea, pp.32-45, 2017.

김 순 구(Soon-Gu Kim) [종신회원]

- 1998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석사)
- 2003년 8월 : 부산대학교 대학원 간호학과 (간호학 박사)
- 2000년 3월 ~ 2004년 8월 : 강원관광대학교 간호과 조교수
- 2004년 9월 ~ 현재 : 대구보건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관심분야〉
간호학, 간호교육, 아동 건강과 부모역할